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구조 개혁으로

大韓辯協의 「경찰수사권독립 시기상조」 주장은 時代 逆行하는 기득권 論理

허준영 경찰청장이 최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인권침해 우려」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배포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과잉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검찰이 과잉을 한다고 우리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는 깊은 뜻이 있는 만큼 일단 처분을 기다린 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허 청장의 발언은 지난달 초 『검·경은 수사권 얘기를 하지 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두 달 만의 언급으로, 당시 허 청장은 「경찰에겐 묵비권 밖에 없다」며 침묵선언을 했다.

이와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는 공식 틀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중지하라」고 언급하는 한편 「부처간 의견교환이 도를 지나치면 정부간 무질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천정배 법무장관과 오영교 행자부 장관에게 공개논쟁을 중단토록 지시 했었다.

특히,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허 청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란 용어 자체가 검찰과 경찰이 떼뗄수 없는 거래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수사 구조의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허 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일침을 놓았다. 그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얼마 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냈다.

그는 「변호사 단체가 편파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을 수입하는 변호사는 검찰과 '동업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견해를 밝힌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현명함인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허 청장은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 「대

가성도 없고 액수도 적지만 지휘관이 관련된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해선 「현직 검사의 조사문제에 대해 곧 검

찰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사 소환문제처럼 애매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구조의 개혁이 필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을지훈련을 갖고 유사시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이 훈련장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警友會, 地域社會 奉仕활동 적극 추진키로

경우회가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경우회는 그 1단계로 급변 하 반기중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단위의 지역 경우회별 봉사대를 조직해 실효성 있고, 추진 가능한 봉사분야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우회 중앙회 관계자는 「경우회가 국가

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봉사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키로 했다.

한편 경우회 중앙회는 매년 각급회의 봉사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優秀한 급회에 대해서는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시상함과 아울러 조직의 위상제고와 신뢰증진에 현

하반기부터 대도시 단위별 奉仕隊 운영

와 경찰을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단체가 되기 위해 그간 각급회별로 다소 소홀했던 봉사활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우회는 경찰을 사랑하는 치안협력단체로서의 명분에 부합되는 방법·교통 및 거리 질서유지, 청소년 선도, 미아·가출인 찾기 등의 경찰업무에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자연보호 캠페인, 쓰레기 줍기, 대형 행사장 봉사활동, 불우이웃 돕기, 수용시설 방문 봉사 등 지

지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소요 예산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구홍일 경우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사를 통해 「젊은 시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우리 경우회원들이 현직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제2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치안행정의 버팀목으로서 당당하고 활기찬 경우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한 바 있다.

3면 / 경우회 기획조정위원회 출범

국민은 견제와 균형을 선호

- 수사구조 개혁으로 삶의 질 향상을 -

한국에서 범죄 수사권에 관한 경찰과 검찰의 대립은 건국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결단이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쉽게 정치논리에 표류되거나 양비론(兩非論)에 매몰되곤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다. 이는 아마도 우리의 수사권 구조에 대한 객관적이거나 국민의 입장에 입각한 평가기준과 이에 근거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필자에 의하여 수행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결론을 보완하고 수사권 구조 개혁의 결단을

관한 예상이 증가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검사의 수사지휘의 유용성에 대하여 경찰 수사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검사가 수사경찰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일은 경찰이 하고 공은 검사가 차지하는데 대하여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사실상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케 하는 것이며, 실제로 인권익의식이 강한 경찰관일수록 현행수사권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강도가 높았던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검찰의 범죄수사의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현



이 용 혁
(경향대학 교수)

행 수사권 구조 하에서의 경찰 훈방권의 제한, 검사의 자의적인 의명송치, 이중조사의 폐해, 검사의 석방지휘의 문제점, 검사의 사전지휘의 문제점을 주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가상적 상황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이와 대비되는 분권화된 새로운 수사권 구조하의 가

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더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범죄수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 제기 및 유죄 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일상 업무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범죄예방, 시민보호, 사회문제 해결, 피해자구제, 범죄의 감소 등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현재 외국에서 효과적인 경찰활동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의 개념과도 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가 아닌 통합적 경찰활동을 전제로 다면적 수사 서비스를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조직성과(Organizational Performance)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왕적 검사지배형' 수사권 구조 하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형사사법시스템상 검찰에 걸려진 과부하와 검찰의 수사업무에 지나친 집착으로 무죄 판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공판업무에 대한 검찰의 마이너스 성과는 검찰의 수사업무에

결론적으로 경찰 파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정상적 모습을 갖게 되었던 한국의 수사권 구조는 이제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상 검찰에 걸려진 과부하와 검찰의 수사업무에 지나친 집착으로 무죄 판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공판업무에 대한 검찰의 마이너스 성과는 검찰의 수사업무에

형소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

형소법 개정을 위한 이인기 의원 입법 공청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지난 60여년간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권 공유형태의 경찰 독자 수사권 보장 입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120여만 경우회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후배경찰관에게는 용기와 심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 | |
|--|--|
| 1. 일시 및 장소: 9월 15일(목) 14: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0 토론회자: 경찰 대표 / 검찰 대표 / 변호사 1 / 변호사 2 / 시민단체 대표 / 교수 |
| 2. 주최: 국회의원 이인기 | |
| 3. 토론회자 | 4. 행사일정 |
| 0 발제자: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 0 개회식 14:00~14:40 (' 40) |
| 0 진행자: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 0 종합토론 14:40~16:20(' 100) |

大韓民國在鄉警友會



경찰 승진 강의의 대가!!

한영삼 교수의 지캐스트 경찰승진특강

형법
형사소송법

* 약 력

- 법학박사,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공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대학 교수
-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 중앙경찰학교(신임순경)외래교수
- 경찰종합학교(현직경찰)외래교수
-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 외래교수
- 해양경찰(현직경찰) 외래교수
- 청와대 경호실(101단) 외래교수
- 서울지방경찰청 청원경찰 교육 외래교수
- 현직경찰 승진특강(23년)

23年 강의 노하우로
승진문제 일망타진!!



인터넷 교육 전문 방송국
지 캐 스투
www.gicast.co.kr

☎ 02-817-5111
단체수강할인문의: 전락사업팀(내선230)